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이것은 나의 몸이다 *Ceci est Mon Corps MC 14' 22*」에 나타난 타나토스의 이미지

이 지 원*

I. 서론	<i>Ceci est Mon Corps</i> (2001)에
II. 타나토스(Thanatos)의 개념과 의미	나타난 타나토스의 이미지
III.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생애와 작품 성향	V. 결론
IV. 「이것은 나의 몸이다 <i>MC 12' 22</i> 」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앙젤랭 프렐조카주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정치가이자 철학가라는 칭호를 받으며 전통의 경계를 허무는 안무스타일로 미래 춤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 상상력과 개성이 넘치는 안무와 형식과 틀을 파기하는 그만의 독특한 접근은 늘 관객에게 새로움을 전달한다. 2010년에 안무된 「시디할타 *Siddharta*」와 「그리고, 천년의 평화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2012년도 5월에는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한국에서 공연하여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포스트모던의 실험적인 계보를 이으면서 동시에 탈경계와 탈고정관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작가로 정교한 테크닉을 연마하였다. 최근에는 리옹 오페라 발레단, 파리 오페라 발레단, 그리고 볼쇼이 발레단에 안무가로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다. 이 세대가 낳은 가장 사려 깊고 서정적인 안무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인간의 욕망, 폭력, 섹스의 이미지까지 작품의 주제가 방대하기에 변화와 진보의 독려자로 인식된다.

*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wjoinlee@empal.com

본 연구는 앙젤랭 프렐조카주가 2001년에 초연한 작품 「이것은 나의 몸이다 MC 14' 22' Ceci est mon corps」에 나타난 타나토스에 관한 이미지와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타나토스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소개한 심리학적 용어로 익숙하다. ‘죽음을 말하는 파괴를 지향하는 본능’이다. 이러한 타나토스는 사실 예술을 생성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주제이자 시작점이다. 마리 뷔그만(Mary Wigman)도 「마녀의 춤」을 창작할 당시 인간 누구나에게 내재된 파괴의 본성을 길들이고 다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바라 강조하며 타나토스를 작품의 근원으로 언급한 바 있다.¹⁾ 타나토스의 이미지는 비단 춤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형태로 시대를 불문하며 우리와 함께 공존하였다.

그러므로 컨템포러리 작가로 앙젤랭을 주목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접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그의 대표작품을 살피고 스타일을 논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무대 위에서 실현하는 타나토스 이미지에 관한 경향과 표현을 다루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특별히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작품이 프랑스 왕립 발레단의 무용수들과 함께 한 역작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2004년에 필름으로 출시되어 영상물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무용수 김용걸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작품이었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과 색채 중에서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가 발산하고 있는 철학적, 심리학적 성향과 움직임의 상징적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사실 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50여 편에 달하는 안무 작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작품이 호평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태혜신이 그의 생애와 「결혼」을 다룬 것이 유일하다.²⁾ 본 연구가 향후 앙젤랭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과 연구에 나침반적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이 시대가 원하

1) “죽음은 그 오만한 태도와 음산하고 마치 안달이 난 듯하다. 위협적인 몸짓으로 내게 찾아올 때마다 늘 장엄함 정도의 초연함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순간조차도 죽음은 우리의 한계로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짐목으로 우리를 압도하기에 경의를 표한다.” (마리 뷔그만(1963), 『무용의 언어』, 윤계정(역)(서울: 현대미술사, 1994), p. 18.

2) 태혜신(2005),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Les Noces’ 작품 분석, 『우리 춤연구』, 제1집.

고 열광하는 작가의 철학적 행보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타나토스의 개념과 의미에 관하여 조명하여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앙젤랭이 제안하는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의미화 하여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생애와 작품성향을 살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 나타난 음악, 연출, 움직임과 함께 작품 전반의 구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단하여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4년에 출시된 영상물을 중심으로 의미 해석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본 작품을 타나토스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접근한 점과 작품의 특정 장면만을 선별하여 분석, 서술한 것은 본 논문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유럽의 대표적 현대안무가로 평가받는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안무철학과 스타일을 읽어내는 동시에 컨템포러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시적 감각으로서의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작품에 적용하여 읽어내는 데 본 연구의 의의로 둔다. 본 연구가 향후 그에 관한 작품 해석의 다양성과 분석에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II. 타나토스(Thanatos)의 개념과 의미

1. 타나토스의 개념

타나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죽음을 의인화한 신의 라틴어 이름이다. 그리스어로는 ‘죽음’을 뜻하며 『일리아스』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죽음에 관한 출발은 정신사상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과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서양 철학사 전반에서 죽음 이후에 닥칠 사후세계나 영혼불멸에 관심을 가졌음을 살필 수 있다. 플라톤은 ‘철학은 바로 죽음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으며 플로티누스(plotinus)는 ‘철학에서 배우는 것은 사망에 대한 학습이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생철학자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철학을 사색하지 않을 것이고, 삶과 죽음은 다함께 생존에 속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³⁾

www.kci.go.kr

죽음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프로이트의 해석으로 다시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의 출현으로 인간존재에 관한 죽음이 생의 두려움, 고통, 죄의식 등의 인간내면의 문제들과 자연스럽게 연합되어 부각되었다. 프로이트가 강조한 타나토스는 파괴의 본능으로 '해체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충동적 힘'이라 해석하였다. 타나토스는 죽음을 지향하는 본능이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파괴하고 해체하고 공격하며 싸우는 행동으로 생물이 무생물로 전복되는 근원적 힘이었다.

20세기 초엽 독일의 오슈발트 슈펜글러(Oswald Spengler)는 『서구의 몰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죽음은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이며 인류의 가장 높은 사상은 죽음에 대해 사고하고 사색하는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라는 특이한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보았고 이러한 해답 없는 질문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에게 죽음은 가능성'이라 여겼고 사색하고 분석하는 죽음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강조점은 의식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구적 깨달음⁴⁾이며 '죽음에 구애되는 존재(sen zum tode)'로 갑자기 솟아오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⁵⁾

1969년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ubler Ross, 1926-2004)는 죽음의 과정을 『사망과 임종에 관하여 *On death and Dying*』에서 5단계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⁶⁾ 이러한 타나토스는 학문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3) 석범성(2004), 『사망학』(서울: 운주사), pp. 16-17.

4) 사태가 벌어질 것을 미리 인식하여 그것을 자기 행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만한 것으로 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듯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일상에 파묻힌 자기를 뒤돌아보게 한다. 그가 해석한 죽음은 자신을 미리 의식하고 돌아보는 것이라 말한다. (하마다 타다시, 『철학 상식』, 이수경(역)(서울: 북마인드, 1996), pp. 174-175).

5) 앞의 책, p. 176.

6) 5가지는 1단계로 부인(denial)과 고립(isolation), 2단계로 분노(anger), 3단계로 거래(bargaining), 4단계로 우울(depression), 5단계로 수용(acceptance)으로 구분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사실을 부인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동시에 고립된 감정을 느끼게 되나 이러한 부인은 이후 분노나 원망으로 바뀌어 정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지연시키려는 여러 방법을 궁리하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며 절망상태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세상과 결별하려는 순간으로 곁을 벗어 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1960년대 타나토스를 근원으로 하는 사망학(Thanatology)이 탄생하였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학제간의 연구로 이루어진 죽음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숙고하게 함으로 현실의 삶에 관한 지혜와 사랑, 그리고 애착이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죽음에 관한 이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에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왔는지 모른다. 죽음이라는 본능은 곧 죽음에 관한 충동으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하며 인간의 삶과 함께 호흡하였고 이것이 학문적인 깊이로 접근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피할 수 없으며 운명을 거부할 수 없기에, 두려움이 가득 찬 죽음이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예술에서 살펴본 타나토스 이미지

‘죽음을 기억하라’로 알려진 모멘토 모리(momento mori)는 13세기 이후에 성행한 설교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였다.⁷⁾ 이러한 죽음에 관한 해석과 강조는 중세 시기에 성행하였고 예술의 발현으로 이어졌다. 춤의 형태로 대표적인 것은 댄스 마카브르(Dance Macabre)를 꼽을 수 있다. 마카브르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죽음의 춤이다. 등갈게 원을 그리고 죽은 자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미술에서 표현된 형태도 고위계층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해골과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댄스 마카브르를 소개한다. 『토텐탄츠 Totentanz』에 관한 교과서에 인



〈그림 1〉 댄스 마카브르

『죽음과 죽어감』, 이진(역)(서울: 이레, 2008), p. 187.

7) J. 호이징거는 『중세의 가을』에서 유럽의 중세를 특징짓는 중요한 특징이라 말한다. 물론 이것의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개선행진 속에서 전쟁영웅에게 소리꾼이 외치는 '모멘토 모리'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테마였다. (<http://marcion.tistory.com/220><2012.8.2>)



〈그림 2〉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

쇄된 서문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죽음은 동등하다”라는 문구처럼 죽음은 우리 주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함께 동행 하였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수순으로 인간의 삶 속 과제이자 순응해야할 문제였다. 죽음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일상과 동시에 주어진 과제를 대처하는 위기 상황적 표현이었다.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에서 그려진 해골에는 “나의 어제는 당신의 오늘, 나의 오늘은 당신의 내일”이라 쓰여 있기도 하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망자로서의 달음박질은 추동력이 되어 당시 예술적 영감으로 작용하였다. 회화에 있어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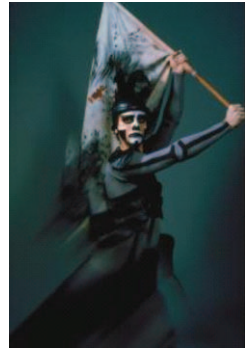
니타스(Vanitas)와 모멘토 모리는 해골이나 먹다 남은 음식, 찰나의 빛을 이용해 죽음과 소멸에 관한 조명으로 타나토스의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인간에게 죽음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대상의 한계로 표현되었고 인간은 삶 속에서 죽음에 관한 충동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지냈다. 요동치는 불안과 고통의 염습은 누구나 견뎌야 할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서로 위로하면서 말이다.

타나토스는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본질로서의 인간의 속성임을 파악하는 근원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충동은 예술 탄생의 근원적 에너지였다. 20세기 이후 예술에서 타나토스는 다시 꿈틀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우주만물의 변화무쌍함과 덧없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인간의 관습과 이성, 감각, 종교-신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짙어지면서 현대 예술에서도 이러한 충동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피카소는 그림이 ‘파괴의 총합’이라고 강조⁸⁾하면서 생의 비극적인 파괴로서의 타나토스를 주제로 하였다. 뭉크는 「절규」에서 마치 혼이 빠져나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 공포에 질린 듯한 사람이 두 귀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발레루스의 1대 안무가였던 미셸 포킨의 작품 「빈사의 백조 *Dying Swan*」는 죽음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검정 막과 대비되는 하얀 백조의 의상은 삶과 죽음

8) 로버트 루트벤스테인, 『생각의 탄생』(서울: 예코의 서재, 2008), p. 192.

에 관한 이원적 시각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걱정적인 날개 짓과 더불어 사그러지는 불꽃처럼 위태로운 움직임은 인간 삶의 굴곡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적 슬픔을 그린다. 희미한 흑백 영상과 같은 작품은 생상의 음악과 함께 스산함과 애잔함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1960년대 '그림은 죽었다'고 선언한 라인하르트(Ad Reinhardt, 1913~1967)의 작품은 검정색의 짙은 색감을 통해 음울하고 어두운 타나토스적 기운을 절감하게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혼란, 파괴, 고통, 불안과 같은 죽음의 의미를 다루었다. 작가들은 군중들이 사고하는 자의식 속의 죽음을 다양한 표현과 채색으로 이루어내었다.

특히 독일의 현대무용가 쿠르트 요스(Kurt Joose)는 「녹색 테이블」(1932)의 부제에 '죽음의 춤'이라 언급하며 절망적이고 암흑과 같은 죽음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녹색 테이블」에서 '죽음'이라는 캐릭터는 검은 막을 배경으로 타락하고 위선적인 것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마력을 분출하였다. 검은 가운을 입은 무용수는 죽음이라는 캐릭터로 무대 위에 최초로 등장하였고 그의 강력한 기운은 죽음에 관한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막연하게 아득한 초월적인 생각이 반영된 죽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며 중형무진 하는 동적인 죽음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어찌 보면 타나토스는 예술가들에 의해 전쟁, 파괴, 충돌,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변형되어 표현되었다. 시대와 생각을 반영하여 무대 위에 죽음의 흔적을 아로 새기는 작업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 「그린 테이블」 (1932)

III.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생애와 작품성향

1.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생애

앙젤랭 프렐조카주는 강력한 움직임과 함께 강렬한 표현적 메시지를 주는 프랑

www.kci.go.kr

스 출신의 안무가이다. 이 시대가 낳은 그리고 시대를 이야기하는 철학하는 안무가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관객은 어떤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의 명성을 고려해서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심도 깊은 주제와, 뛰어난 상상력, 강한 연극적 요소의 배합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1996년 발레루스의 작품 「퍼레이드」, 「장미의 정령」, 「결혼식」을 가지고 최초로 방문한 것이었고⁹⁾ 2012년에는 모다페 축제의 폐막작으로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선정되어 한국 관객과 만났다. 직설적이며 솔직하고 가식 없는 작품들로 철학적 사유와 성찰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57년 파리에서 태어나 카린 웨흐너(Karin Waehner)로부터 사사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머스 키닝햄과 함께 작업하였다. 1982년 도미니크 바쿠에(Dominique Baqouet)의 단원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어드벤처 콜로니얼즈 *Adventures Coloniales*」를 안무하여 데뷔무대를 가졌다. 1984년에는 무용단을 창단하고 「마치 누아 *Marche Noir*」등을 창작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루었다. 잠시 일본으로 건너가 노(noh)를 공부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그의 주옥같은 작품은 다양한 무용단들의 협업을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아머 아메리카 *Amer America*」로 리옹 비엔날레에 초청받았고 코믹북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1990년에 협업하였으며 1992년에는 그랑프리상(The Grand Prix National de la Danse et de la Image(TNDI)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발레루스에게 헌정하는 「퍼레이드」와 「장미의 정령」 그리고 「결혼」을 재구성하였다. 1994년에는 「르 파크 *le Parc*」를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공연하였고 「불새 *Firebird*」를 뮌헨 발레단(Munich ballet)과 함께 선보였다. 이후 모스크바의 볼쇼이에서 베누아 드라 당스(benoit de la danse)를 수상하며 명실 공히 최고의 안무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부터 그의 무용단은 악 생 프로방스(Aix-en-provence)에 정착하여 레파토리 작품을 공연하였다. 2001년 「봄의 제전」을 안무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2003년 「어논시에이션 *Annonciation*」이 영상버전으로 제작되었다. 2006년에 주요 레파

9) “프렐조카주 무용단 첫 내한 공연”, 『한계레』(1996.10.10일자)

토리인 「결혼」이 재구성되었고 2007년 「엘도라도 *Eldorado*」와 「하카 *Haka*」, 그리고 「엠티 무브즈 *Empty Moves*」가 창작되었다. 2008년 「백설공주 *Blanche-Neige*」는 구스타보 말리의 교향곡과 26명의 무용수들이 어우러져 구성되었는데 리옹 비엔날레에서 장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의 의상과 티에리 레프라우스트(Thierry Leproust)의 세트 디자인이 더해져 찬사를 받았다. 2009년에는 「르 프너블레 *Le Funambule*」가 장제네(Jean Jenet)의 대본으로 창작되었고 2010년에는 브리짓 레페브레(Brigitte Lefevre)의 초청으로 「시디할타 *Siddharta*」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함께 창작되었다. 2010년에는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볼쇼이 발레단과 발레 프렐조카주가 함께 협업하였다.

공연 뿐 아니다. 2011년에는 무용가로는 드물게 에어 프랑스의 커머셜 광고를 안무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르 파크」의 환상적 듀엣을 발췌한 광고로 남녀 이 인무를 통해 구름 위에 떠 있는 비행장면을 아름답게 연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2년에는 4명의 힙합댄서를 위한 작품으로 「로얄므 유니 *Royaume Uni*」를 페스티벌(Suresnes Cites Danse)에서 선보였다.

이렇게 그의 행보는 대단하다.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와 향방이 그러하다. 이미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영국과 인도에서 2013년까지 공연계약이 완료되었고 그 외 2013년에 공연이 예정된 도시 수 만해도 40여개에 달한다. 간략하게 그의 대표작을 살펴보자. 한정적이거나 영상물로 접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감상한 세 작품을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로 선정하였다. 1995년 「어논시에이션」과 2008년 「백설공주」, 그리고 2010년의 「그리고, 천년의 평화」이다. 작품에 관한 접근은 움직임이 파생한 의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석하여 볼 것이다.

1) 「어논시에이션 *Annonciation*」

본 작품은 1995년 초연되었고 1996년 레파토리로 공연되었으며 1997년 베시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에는 필름 버전으로 새롭게 완성되어 아름다운 영상미를 가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장면은 마리아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만남이다. 마리아의 자궁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천사가 전하는 수태고지를 춤으로 연출한 것이다. 이러한 테마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안젤리코



〈그림 4〉 「어논시에이션」(1995)

(1441), 레오나르도 다빈치(1475), 로제티(D. G. Rossetti)(1850), 르네 마그리트(1930), 랜돌프(Lynn Randolph)(1995)등에 의해 같은 주제에 다른 표현이 나타났다. 누가복음¹⁰⁾에 의하면 그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먼저 작품 속 움직임에 주목할 수 있다. 두 여성의 대조적이고 상징적인 몸짓이 포착된다. 흰옷을 입은 마리아와 파란 색 옷을 착용한 천사는 힘의 배율과 에너지 그리고 공간 사용에서 다른 구도를 이룬다. 여성성이 강조되는 마리아의 몸짓과 다르게 가브리엘의 몸짓과 행위는 절도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분절적이다. 가브리엘이 손가락을 상대방의 입안에 삽입한다던지 여성의 발목이나 가슴을 터치하여 힘의 구조를 전달한다. 이와는 상반되게 순종적이며 고결한 마리아는 움직임에 있어서도 평행과 조화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고 느린 템포의 몸짓으로 그녀의 심사숙고한 성격이 노출된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하얀 의상과 흰 눈을 통해 상징한다. 마지막에 쌓이는 하얀 눈은 그녀의 때 묻지 않은 마음과 몸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예수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에 눈이 쌓이고 그 위를 걷는 마리아는 향후 미래의 기독교의 탄생과 의미를 눈 속에 발자국으로 남기며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암시한다.

2) 「백설공주 *Blanche-Neige*」

2008년에 창작된 「백설공주」는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근래에 가장 원전에 가까운 강력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¹¹⁾ ‘현대적 갈등’으로도 비추어볼 수 있는 고

10)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누가복음 1장 26절-33절, www.holybible.or.kr, (2012.8.1))

전을 아주 잘 해석하였고 인간심리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4-5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아름답거나 젊거나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중년이라는 시간에 느끼는 근원적인 여성의 감정을 극대화시켜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어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둡고 잔인한 스릴러물로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르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의 심리학적 글에 영감 받아 제작되었으며 구스타보 말리의 곡과 세계적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의 의상이 더해졌다. 새엄마와 백설 공주의 심리적 구도를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중세적 향수와 현대적 감성을 추출한 의상이 돋보였다.



〈그림 5〉 「백설공주」(2008)

본 작품은 역할과 캐릭터의 극명함과 움직임의 컬러가 독특하게 연출되었다. 이중적 정체성에서 오는 다른 생각이 다른 색채의 명작을 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프랑수아즈 알바니아인으로서의 집안 배경이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고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주목받지 않는 아주 작은 무용수들을 난장으로 기용할 수 있었고 백설 공주지만 얼굴이 백설처럼 하얗지 않은 동양인 여성이 주역으로 캐스팅되었으며 남미 혈통의 유색인이 왕자역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같지만 같지 않고,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고전과 현대의 오묘한 조합과 조화를 이 시대의 감각으로 짚어내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3) 「그리고 천년의 평화 *Suivront Mille ans de Calme*」(2010)

본 작품은 현대사회의 인간타락을 기독교적 성찰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다. 요한 계시록의 “땅속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리라”라는 구절이 서두를 장식하며 이후 상징적 심판과 유사하게 일탈에 대한 승배나 절대신에 관한 기독교적 성격이 감지된다. 절대적 세계에 대한 열망과 미래세계의 불안함 등이 어떻게 예술적 세계에 적용되어 춤으로 해석되는지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앙젤랭은 무

11) Judith Mackrell(2012), Angelin Preljocaj: Who's the kinkiest of them all? The Guardian (2012.4.18)



〈그림 6〉 「그리고 천년의 평화」(2010)

대에서 발레 움직임의 정연함과 일관성을 배제하고 구성을 파괴하며 우연적인 것과 같은 전체적 구성을 통해 종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흥미롭고 변칙적이다. 움직임의 모듬이나 구성은 관객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무의지적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부여하는 여러 모티브와 해석 코드들은 몽상적 세계와 같은 미래 세계의 예견된 모습이며 동시에 상징화된 텍스트라 하겠다. 또한 새로운 탄생이지만 그것은 이미 검은 색으로 채색되어 어둠의 성격을 드러내고 성경의 복음은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적 복음이지만 동시에 어둠의 세계에 관한 예표로 해석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인물로 무용수들의 몸은 죽음의 시간으로 몰고 가는 사자이자 천사라는 대비적인 시각이 엮힌다.

2)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작품성향과 특징

그의 작품 성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타 예술과의 컨버전스’, ‘오브제의 적극적인 활용’, ‘움직이는 몸에 관한 집중’ 등을 언급 할 수 있다. 그의 스타일을 몇 가지로 축약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본 작품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테마로 추출하여 볼 것이다. 첫 번째는 ‘테마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군무진의 활용’ 이며 마지막으로 ‘날 몸에 관한 주목’ 이다.

먼저 ‘테마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다. 사실 그의 작품이 모두 줄거리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명확한 주제가 있다. 그리고 많은 작품이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며 성서나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특별히 고전을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나 「백설 공주」가 있고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메테아의 노래」가 있으며, 성서를 바탕으로 한 「어논시에이션」과 마태복음의 14장의 내용을 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있다. 이러한 테마를 지닌 작품은 기본적으로 관객의 주목을 끌어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석될까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해석한 작품이 아니라 그의 철

학적 성찰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흥미롭다. 「어논시에이션」에서 가브리엘 천사에 관한 묘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사와 같은 투쟁적 모습으로 그려졌다. 마리아와 대비되는 짧은 머리와 진한 색의 의상 등으로 그녀의 주관과 생각을 반영한다. 더불어 명확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명한 동작은 마리아의 몸짓과 대비를 이룬다. 이것은 비단 성서적 내용으로 뿐 아니라 현대여성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대조적인 움직임은 삶과 죽음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이원적인 모습으로 그리며 현대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군무의 활용’이다. 몇몇의 소규모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의 작품 대부분은 군무를 활용한 작품이다. 그가 주로 대규모의 발레단과 작업을 감행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그리고 천년의 평화」에서는 군무가 행과 열을 중시하는 작품 패턴이 두드러진다. 그가 타고난 안무가임을 입증하는 것은 집단적인 움직임 속에



〈그림 7〉 「하카 Haka」(2007)

에너지, 무게감, 공간감, 역동감에 관한 개념을 숙지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강과 상승의 절묘함을 강조한 2007년 「엠티 무브즈」가 있다. 같은 해 「하카 Haka」에서도 무용수들의 운동감을 전달하며 ‘이것이 춤이다’라는 현대춤의 생동감을 발작적인 몸의 충격으로 전달하였다. 작품 속에서는 등 뒤에 숫자가 있는 검정 티셔츠와 짧은 팬츠, 높은 검정 구두를 신은 여성무용수들이 무대를 꽉 채운다. 비장한 표정과 함께 일사 분란한 대형이 작품의 힘을 말하고 통일성과 절도 있는 움직임이 강조된다. 현대 예술작품에서 우려되는 ‘관념의 과잉, 실체의 상실’이라는 해석을 무색하게 하는 통쾌한 ‘춤’ 작품으로 관객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움직임이 작품을 이끄는 주체이다.

세 번째로는 그의 작품에는 ‘날 몸에 관한 주목’이 있다. 나체로 등장하는 무용수는 알몸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탈의한 인간의 몸은 진실하다는 기본적 사고와 함께 사회 규범으로부터 이탈, 그리고 맨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도덕규범이

라는 틀 속에 몸을 뽕뽕 동여 메고 겹옷을 걸치고 사회가 규정한 윤리를 실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서로를 살펴보고 안다고 이해하며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림 8〉 「몸의 제전」

양젤랭이 무용수들에게 옷을 벗어던지게 하는 것은 관습과 규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미 뿐 아니라 그것의 해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 뿐 아니라 옷 속 감추어진 맨몸을 드러냄으로써 엄격한 금기의 시슬로 고정관념, 편견 등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의식 속에 고정화된 동성애, 여성, 장애인, 인종에 관한 해석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일 것이다. 비문화적이라는 맨몸의 드러냄은 문화를 재해석하고 비이성적이라 치부하였던 것에 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몸의 제전」 속에 발가벗겨진 여성이나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서 겹옷을 내팽겨친 남성무용수들, 그리고 「그리고, 천년의 평화」에 벗은 몸의 무용수들이 모두 그러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맨 몸으로 부딪히고 감당해야 하는 최소의 조건을 관객에게 제시함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양젤랭의 작품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2001)에 나타난 타나토스적 이미지에 관하여 해석하여 볼 것이다.

IV. 「이것은 나의 몸이다」(2001)에 나타난 타나토스의 양가적 이미지

1. 작품 개요

12명의 프랑스 왕립 발레단의 남성 무용수가 작품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누가복음의 구절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작품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 몸에 관한 다양한 속성과 인간성의 본질 등을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 탐색하고 있다. 총 공연시간은 47분 동안 지속되며 전체적인 구성은 몇 가지

www.kci.go.kr

의 소테마의 병합으로 이루어진다. 12가지의 테마는 음악의 변환과 함께 움직임의 주제도 파트마다 다르게 강조되고 있다. 이미 신표현주의의 피나 바우쉬의 등장으로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소재와 장면으로 지속되는 것은 관객에게 지루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여기에 앙젤랭은 전환에 있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사건과 표현을 구성한다. 채 5분도 안 되는 장면 장면들은 깨어지고 단절되어져 관객에게 새로움과 자극으로 연결된다. 작품 전반에 움직임과 음악, 표현과 연출 등을 통해 타나토스적 충동과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무대 위 세트는 8개의 탁자가 배치되고 변형됨을 통해 여러 상징적인 코드를 제시한다. 탁자는 화합의 장소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감지되며 관객과의 대화에 창구 역할을 감당한다. 세트는 겹쳐지고 흩어지면서 작은 공간, 식탁, 점프대, 높이 감 있는 고층빌딩과 같은 각가지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의 섬세한 구성과 연출을 통해 다른 상황의 다른 의미로 전환, 생성하며 작품의 이야기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점층적인 구성으로 이끌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대 의상과 연출 부분을 살펴보면, 의상은 검정 치마와 짧은 팬츠로 구성된다. 의상의 무게를 제한함으로써 몸으로서의 의미를 가중시키려는 안무가의 의도가 전달된다. 마치 12명의 예수의 사도들이 바라보는 세대와 현실을 개탄하듯 검정색의 색깔은 무겁게 느껴진다. 상반적으로 작품 초반에 등장한 하얀색의 의상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진다. 마치 생의 심동을 말하듯 태중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모습과도 오버랩 된다. 한 평도 되지 않는 무덤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몸말이다. 맨 몸으로 세상에 맞설 희망을 품은 채 인내하는 아이의 모습에서도 타나토스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다.

작품음악은 현대음악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기계음과 동시에 목소리 그리고 정적이 본 작품의 본질감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소품을 활용한 소리와 소음도 함께 공존한다. 이빨로 테이프를 찢는 소리, 힘이 들어 한숨을 내쉬는 소리, 목젓을 가격하는 타인에 의해 고통에 젖은 목소리, 깨질듯 한 기계음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소리가 움직임과 접목되어 관객에게 자극을 주며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발산하

〈표 1〉 「이것은 나의 몸이다」의 작품 구성

장면	시간(Min.)	세트	안무	연출	이미지	음악
1	1-4	8개의 탁자 무대 뒤에 쌓여 배치됨	뒤에 8명의 무용수와 양쪽 전면에 2명과 1명의 무용수 배치	전체조명을 어둡게 하고 앞과 뒤의 무용수를 조명	씻김을 받는 무용수/테이프를 자르는 무용수/단체로 누워있는 무용수의 모습이 카메라의 장면 장면으로 이어져 작품 전반의 연속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마치 (피에타)와 같이 성경 속 다양한 테마를 떠오르게 함	중소리 여성의 목소리
 2	4-6	8개의 탁자가 뒤쪽에 배치	겹겹이 쌓인 탁자 안에서 옹크린 채 8명이 움직임	허얀 팬티만을 착용한 무용수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움직임 보임	태중 아이의 모습과 상반된 관 속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이미지	중소리 여성의 목소리
3	6-9	탁자 배치 (조명 아웃)	4명의 무용수의 춤	몸과 몸이 붙은 무용수 등장	2명씩 짝을 이루어 두엿은 상반되며 대조적인 동작을 구성하며 삼쌍둥이와 같은 이미지로 결탁	무음악
4	9-12	앞뒤로 3개씩 6개의 탁자가 배치	뒤편탁자 정리	2명씩 짝을 이루어 춤 군무의 무용	통일, 조화, 대칭을 강조하는 절도 있는 움직임과 숨겨진 연속 동작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 표출	기계음(쇠 두드리는 소리)
5	12-15		탁자위의 2명씩 움직임	동작의 속도감 강조		씻소리 바람소리
6	15-19		영겨지는 동작	통일감과 함께 조화 강조	정체성 없는 걱정적이고 빠른 몸짓과 표현 (타나토스적 충동)	기계음(그릇 깨지는 소리)
7	19-21	일자로 탁자 배치	두엿의 움직임	갈기와 거칠게 던지고 던져짐	맹목적, 추종적 서열 사회의 이미지	무음악 무용수의 호흡 소리
 8	21-28		테이블을 활용한 산발적 춤	포즈위주의 움직임 빨간 조명	식탐, 권력, 파멸, 물욕, 쾌락, 균형에 관한 몸적 이미지와 죽음에 관한 망각된 사고를 반영 (최후의 만찬)	중소리 울림소리
9	28-32		무대뒤편 군무 배치(통일) 무대 앞 편 세 명의 몸짓	한명의 무용수 노래	2명의 무용수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함(목적 제한과 구속) 인간의 구속사적 이미지	무음악 노래소리
10	33-39	탁자가 일직선으로 무대 앞쪽에 배치	군무의 춤	움직임의 정수 통일감 강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반영	타악기 전지음

〈표 1〉 계속

장면	시간(Min.)	세트	안무	연출	이미지	음악
 11	39-47	뒤편에 탁자배치	한 남성 무용수의 춤(벗겨진 하의)	테이프를 통해 움직임을 방해	눈과 팔, 다리, 몸통 등 제한을 가함으로 몸의 한정성과 동시에 해방적 열망의 증폭된 감성과의 조우	전자음/무음악
12	47-	뒤편 탁자가 계단식으로 재배치	뒤에 군무의 몸짓/앞쪽 한 남성이 얼굴에 페인트칠함/두 명의 무용수 좌측에서 움직임	과열음과 함께 절정으로 치닫는 인간의 욕구 주목	무표정하게 계단 위를 향하고 후에 낙하는 모습 강조되고 앞쪽에 정적인 한 남성의 울부짖음이 위태롭게 보여짐으로 상반적이고 이원화된 죽음의 이미지	전자음/빠르고 격한 음

는 코드로 작동한다.

이렇게 본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12명의 남성 무용수는 성경 속 사도의 수와 같으며 소품이나 공간 생성으로서의 오브제의 활용이 두드러져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며 무용수들의 의미 있는 몸짓이 관객들과 교감을 이룬다. 작품 전체에서 군무의 힘과 더불어 철학적인 구도자로서의 인간 실존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필 수 있다. 인간 몸, 다시 말해 인간의 생을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실존과 종교적 성찰을 타나토스적 충동을 통해 구도화 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2. 작품에서 나타난 타나토스적 이미지

타나토스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 면이 돌출되어 도드라진다. 박탈당한 인생, 맹목적이고 투쟁적인 다툼의 종말, 신이 부재한 장소, 성적 타락과 어두움의 세계로도 표현된다. 작품 전반에 어두운 조명은 빛을 차단함으로써 피안의 세계에 관한 알 수 없음이나 두려움을 말한다. 또한 중간 중간 하이라이트 된 빨간 조명은 타나토스를 망각한 인간 욕망과 충동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인간의 아귀다툼과 지배, 탈취와 같은 인간 본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작품전반에 타나토스에 관한 사고는 이중적으로 대비된다. 작품 초반에 4명의 무용수가 등장한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인식문제는 이러한 모습에서도 찾을

www.kci.go.kr

수 있다. 이중적 시각은 삼쌍둥이와 같이 몸이 붙은 두 무용수들을 통해 포착된다. 그들의 움직임은 상반적이며 조화롭다. 동시에 대칭적이며 통일성을 지닌다. 이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주도적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앞서지 않는다. 두개의 개별 개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맞물려져 움직임을 행한다.

죽음과 삶이라는 동전의 양면적 성격이 춤으로 제시된다. 〈장면 9〉는 인간의 폭력성과 권력 의지를 그리고 있다.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이는 그가 계속적으로 노래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 〈장면 11〉의 테이핑 싼도 그러한 맥락이다. 다른 사람은 테이핑을 통해 한 사람의 몸에 제한을 가하고 고통을 지속적으로 안겨다 준다. 테이핑은 무언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이다. 영키고 섞여서 상호작용하고 합쳐지는 불균일의 중첩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고통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이 아닌 기계와 같이 그저 파괴만 있을 뿐이다. 테이프를 이빨로 잘라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붙이는 이것은 오직 한 사람의 행위와 의지를 꺾기 위함이다. 이빨은 어떠한가? 이것은 동물과 동일한 죽음과 폭력의 성격을 지닌다. 육식동물의 생존의 토대는 강인한 이빨이며 동시에 언어와 소비와 폭력의 기관이기도 하다.¹²⁾ 한 사람이 물어 뜯어낸 테이프의 접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과 실존은 죽음의 과정으로 몰아가는 파멸에 관한 표식을 인간의 치아로 드러내 보인다.

작품에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타나토스적 충동과 이미지이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죽음을 통해 삶을, 자기희생적 인간의 모습과 가학적인 이기적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양가적인 이미지로 전시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인간의 고독한 내적 성찰과 투쟁,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고통의 중압감과 파멸로써의 충동을 타나토스적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의 삶과 현대인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삶을 살면서도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끊임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러

12) 브라이언 터너(200), 『몸과 사회』(서울: 몸과 마음), p. 18.

한 사고는 망각과 기억 속에서 삶에 영향을 준다. 작품은 이러한 죽음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상기시키며 동시에 인간의 파멸적이고 욕망적인 형태를 상반적으로 드러냄으로 생중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축약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곧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말하는 타나토스의 시선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다. 먼저 시공간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예수와 현대인에 관한 대비적 시각이다. 이것은 자기희생적 관점과 이기적 욕망으로서의 타락성을 포함하는 첫 번째 단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는 죽음에 관한 순환성과 단절성에 관한 시각이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인지 아니면 반복, 순환적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머나먼 곳으로의 죽음은 이원적 성격을 지니며 작품 속에 고스란히 펼쳐진다.

1. 자기희생과 자기 욕망으로써의 이중성

본 작품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있다. 유월절 식사 이야기 속에 포함된 마지막 식사는, 예수고난과 죽음의 그림자를 예고한다. ‘떡-말씀’과 ‘잔-말씀’을 통한 예수의 상징적 행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기 희생적 관점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수확을 이루듯이 예수의 죽음은 타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만찬 하는 자와 자기를 기념하는 자를 위한 자기희생의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초반에 피에타의 작품처럼 성스러운 예수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 이러한 만찬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무대 중앙에 투사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탄과 눈물을 보이는 예수의 이미지가 오버랩 됨으로 희생적인 예수와 성스러운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욕망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예수의 죽음을 논한 최후의 만찬은 성경 속의 모습이 아니다.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변칙적

www.kci.go.kr

이다.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지는 구도가 고스란히 나타나지만 자리를 채우는 인간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모습이다. 순간 포착으로 정지하듯 동작을 이어나가며 성서적 말씀과의 괴리와 타락을 드러낸다.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과장되게 표현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어가고 있는지 인간의 망각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본질을 들추어내는 듯 보인다.

성적 메타포는 현대인의 자폐적인 파괴욕구가 굴절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대속적 죽음이나 자기희생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현대의 이기주의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타락한 성적 행위¹³⁾는 반복적이며 자극적이다. 여기에 효과음이 더하여져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남에 관한 고려나 이해가 자리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인간의 죽음을 자극적인 이미지로 선보인다. 남성무용수만을 기용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한 점도 흥미롭다. 동성애적 인상을 심어줌으로 현실의 불모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욕망과 현실 사이의 단절된 관계나 사회와 윤리관 속에서 불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적인 죽음에 관한 수용적 시각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지 성찰하게 한다. 인간의 본질이 이기와 타락이라는 듯이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위가 아닌 아래만을 보고 안주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른다. 죽음에 관한 진지한 숙고와 사고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은 장면이라 하겠다.

2. 순환과 단절적 코드로서의 대비성

두 번째로는 '자기 파괴의 충동을 통한 순환적 죽음'과 '단절적 성격으로서의 죽

13) 바타이유는 이러한 함치를 온전하고 경계가 없는 그 무엇, 나를 넘어서는 연속성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읽어낸다. 이처럼 온전한 연속성은 찰나적인 것이며 이는 인간이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을 갈구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행위는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일지 모른다. 인간은 이성과 쾌락을 동시에 추구해왔고 이성의 결과로 노동을, 쾌락의 결과로 에로티즘을 영위했다고 바타이유는 정의했다. 노동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칙, 절제, 축적, 근면 등이 요구되지만 성적 행위는 노동과는 다른 속성으로 불규칙, 과잉, 소모 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에 빠진 사람은 노동을 멀리하고 성적 결합이 주는 엄청난 힘에 자신을 내던지며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소모하기에 작은 죽음과도 같다는 표현을 한다. (류혜원(2008), 에로티시즘의 정치학: 로버트 헤릭의 「헤스페리데스」를 통해 살펴본 성애와 죽음, 밀턴과 근세 영문학, 제 18집 2호, p. 304).

음'을 이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 무대 앞에 등장한 한명의 무용수는 울부짖고 있다. 눈을 감고 흐느끼듯이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는 단 한 사람으로, 유일한 자이다. 뒤에 배치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인간으로 읽혀지는데 다른 사고에 의한 다른 몸짓으로 파악된다. 그의 등 뒤에서 추락하는 인간들의 반복적인 행태에 고뇌하고 아파하는 모습이기에 다수가 생각하는 죽음으로서의 해석이 아닐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속죄가 가능한 시간은 인간 몸을 가진 그 순간 동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다수 인간의 무지를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고 다시는 회귀되거나 돌아올 수 없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다. 다수가 정한 인간의 '순환적 죽음'에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스스로 검은 물감을 얼굴에 묻히며 망연자실하게 무대 위에 서있다.

그의 뒤에 배치된 다수 무용수들의 모습은 열을 지어 한 곳을 향해 움직인다. 미련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스텝을 밟아 올라가며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무엇을 위해 전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표정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올라 설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밀로 추락한다. 그 뒤를 따라오는 무용수도 하나, 둘 공중을 향해 몸을 던지는 반복된 동작으로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들은 죽음에 관해 망각하고 있고 마지막이 아니기에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한 연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우리네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안주하지 않고 남과 다른 위치를 점하기 위해 위를 향해 나아간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느닷없이 마주하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탄에 빠져 정죄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한다. 관객은 이들 무용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실존과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회귀적인 성격으로의 죽음에 관한 시각과 동시에 회귀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단절적 시각으로서의 죽음을 양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작품은 인간의 원초적 갈망과 불안이라는 타나토스적 충동을 삶과 죽음, 희생과 파괴, 순환과 단절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은 인간 삶에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자 충동이며 삶을 지속시키는 과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여러 이미지와 장면을 작품 속에 연출하고 있지만 인간이 대면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게 한다. 양젤랭은 인간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서의 죽음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통해 점검 한다면, 인간다운 삶, 준비하는 삶, 예측할 수 있는 삶이라는 긍정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 모른다. 그는 부정적인 타나토스를 무대 위 양가적인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저 한 순간에 머물다가는 사라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며 종교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긍정적 의미의 죽음을 뒤돌아보게 한다.

타나토스는 어차피 삶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삶과 동반자적 관계인 것이다. 삶의 충동인 사랑과 죽음의 충동인 타나토스는 등가로 우리네 존재의 근본적 요인이자 인간존재의 본질이라 하겠다.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존재론적 과제로 인류가 가지는 가장 신비하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는 인간에게 현재의 삶을 뒤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으로 타나토스의 양가적 성격과 의미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궁극적인 타나토스적 충동에 의해 근원되고 동시에 새로운 생성과 자극의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맞부딪혀야 할 숙명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 나타난 타나토스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살필 수 있었다. 양젤랭이 제시하고 있는 깊은 사색의 흔적을 타나토스의 양가적 의미로 진단함으로써 현시적 감각과 철학적 화두를 단편적이거나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작품 전반에 여러 장면과 이미지를 통해 삶 속 죽음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이끌어낸다. 삼쌍둥이와 같이 통일된 동작을 선보이는 무용수의 움직임, 테이핑으로 제한을 가하는 무용수와 고통을 받는 무용수의 움직임

입, 오브제를 활용하여 태중 이미지와 동시에 무덤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몸짓, 타락한 인간욕망으로 채색된 「최후의 만찬」 장면, 무한히 반복되는 추락장면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통한 인간 삶의 여정을 몸에 관한 사고와 일깨움을 통해 내던지고 있다. 죽음과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기독교적 구도와 사고를 제시하여 인간의 본질과 실존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

그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양가적 이미지로 구현한다. 인간의 고독한 내적 성찰과 투쟁,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죽음이라는 고통의 중압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크게 본문에서는 타나토스적 이미지를 '자기희생과 대비적인 인간 이기로서의 파멸적 죽음'과 '순환성과 단절성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으로 그린다. 이는 시공간적 의미와 우주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삶을 살면서도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끊임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생중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작품이 전달하는 타나토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은 삶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라는 긍정적인 사고이다. 삶에 관한 발자취와 점점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내던져진 죽음에 관한 질문이 가시적인 재현을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산다는 것, 즉 생존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절박하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욕망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에게 삶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 즉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이다.”¹⁴⁾라는 석법성의 『사망학』의 표지 글이 작품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에 관한 접근이다.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고민함으로 생에 관한 바른 기준과 지혜를 터득하고 죽음에 관한 준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과제는 생존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생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삶은 죽음의 연장으로 동시성을 지니며 이미 내재된 과정임을 깨닫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삶을 존속시키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생애 동안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인류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인

14) 석법성(2004), 표지 글.

간의 수명이 있는 동안 죽음에 관한 궁금증과 사유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삶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인생관을 점검하고 바른 잣대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양철랭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종합하여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안목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차후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지기 바라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 서재, 2008.
- 뷔그만, 마리(1963). 『무용의 언어』, 윤계정(역). 서울: 현대미술사, 1994.
- 석법성(2004). 『사망학』, 서울: 운주사.
- 이지원(2011). 『춤과 몸의 정치』, 서울: 두술.
- 바타이유, 조르주. 『에로티즘』, 조한경(역), 서울: 민음사, 1989.
- 류혜원(2008). 에로티시즘의 정치학: 로버트 헤릭의 「헤스페리데스」를 통해 살펴본 성애와 죽음, 『밀턴과 근세 영문학』, 18(2).
- 박남희(2010).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이에 놓인 거울. 『창작21』 신년호.
- 태혜신(2005). 양제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Les Nocces’ 작품 분석. 『우리춤연구』, 1: 231-244.
- Judith Mackrell(2012), Angelin Preljocaj: Who’s the kinkiest of them all? The Guardian(2012.4.18).
- “프렐조카주 무용단 첫 내한 공연”, 『한계레』, (1996.10.10일자).
- <http://marcion.tistory.com/220><2012.8.2>
- <http://www.holybible.or.kr>,<2012.8.1>
- <http://fr.m.wikipedia.org><2012.7.20>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6일
심사일	10월 21일
심사완료일	10월 26일

www.kci.go.kr

Abstract

Image of Thanatos Portrayed in Angelin Preljocaj's 「Ceci est Mon Corps MC 14' 22」

Jiwon Lee

Lecturer in dance

ChoongAng Univ., Sungkunkwa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meaning of death portrayed in 「MC 14' 22」 Ceci est mon corps」, the work in which Angelin Preljocaj first performed in 2001. Thanatos is a psychological term introduced by Sigmund Freud(1856~1939) that signifies instinct towards death. This was the original subject and starting point of art-creating humans.

The work of Angelin Preljocaj shows these tendencies. Especially through the double-sided images, we can see comparisons and symbols of the modern man. It captures scenes of dancer's movement unified as Siamese twins, images of dancers restraining others with tapes and dancers in pain, scenes of maternity using objet overlaying a grave-like space, and scenes from the 「The Last Supper」 portraying corrupted human desires instead of atonement redemption of Jesus. These scenes disclose double-sided images of death that transcend beyond the borders of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It conveys the painful weight of one man's lonesome introspection and struggle on the ultimate question and that named death that consistently presents itself in life. It is also a death-in-life perspective reminding us in life that death is continuously restraining us from not afar.

He is deemed as a politician and philosopher who represent this world. Works that asks for philosophic reflection and a choreographic style that tears down the traditional boundary proposes new directions for future dance.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in grasping Angelin Preljocaj's choreographic philosophy and style, and applying his work in comprehending the displayed senses and topics of the contemporary era. Hopefully this study can be a stepping stone in diverse interpretations and analysis of his work.

keywords: Angelin Preljocaj(앙젤랭 프렐조카주), 「Ceci est mon corps MC 14' 22」

(「이것은 나의 몸이다」), Thanatos(타나토스), Contemporary Dance(컨
템포러리 댄스), death(죽음)

www.kci.go.kr